

‘사람됨’ 준거 위반과 도덕적 정서로서의 화(火)의 관계 분석*

김 기 범[†]
성균관대학교

임 효 진
중앙대학교

한국 문화에서 ‘사람’에 대한 지각이나 평가의 차원으로 ‘도덕성’과 ‘능력’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람은 어떠해야 한다’는 문화적으로 공유된 신념이나 가정 혹은 표상이 있다는 것은 어떤 행위자가 사람으로서의 기대와 신념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을 때 도덕적 평가를 받게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도덕적 판단이나 평가와 관련된 정서 중 하나가 화(火)이다. 화 표현은 도덕적 관례 속에서 문화적이고 규범적인 양식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화를 내는 것은 타인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이 개입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람됨의 준거가 무엇이고 사람됨의 준거를 위반했을 때 화 반응을 분석하기 위해 두 가지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1에서는 사람됨의 준거와 이를 위반했을 때 평가와 이유를 질적인 접근법 중 FGI와 면접을 통해 알아보았고, 연구 2에서는 사람됨의 준거 위반을 대인관계 차원과 개인의 자율 차원으로 구분하여 행위자에 대한 평가를 측정하였다. 면접 분석 결과, 사람됨의 준거는 대인관계 윤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차원으로 나타났고, 실험 결과 자율성 영역보다는 대인관계 윤리 영역을 위반했을 때 더욱 화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 반응은 비난이나 책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사회규범을 위반했다는 판단에 행동을 억제하거나 제지하는 심리적 기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사람됨, 도덕성, 도덕적 정서, 화, 대인관계 윤리, 자율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4-075-B00003).

† 교신저자 : 김기범,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3가, E-mail : purple66@skku.edu

범죄 행위 중에 반인륜적, 패륜, 인간이 저지를 수 없는, 잔인한 등의 수식어가 붙는 범죄들이 대중매체나 사람들의 입가에 오르내린다. 범죄 행위에 이러한 수식어가 붙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이러한 행위는 사람으로서 할 도리나 사람이 해야 할 바를 어겼다는 것과, 두 번째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도덕적 심판이 가해졌음을 의미한다. 어느 문화권이나 두 번째 의미는 존재하나 첫 번째인 사람으로서 혹은 사람이 해야 할 바 혹은 도리에 관한 가정이나 신념에는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서구 문화권에서는 이성적 삶을 실천하는 것이 사람이고 사람의 궁극적 목표는 행복인데 이는 이성을 통해 완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Barresi, 1999; Burr, 2002; Taylor, 1998). 이러한 사람됨의 가정은 계몽주의 이후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는 결과로 이어져 서구인의 자기개념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로 여겨져 왔다(Markus & Kitayama, 1991; Triandis, 1995).

반면에 유교문화권에서는 대인관계 윤리를 지키는 것이 주요 덕목으로 여겨져 왔다(이승환, 1998; 조궁호, 1998, 2003; 최상진, 2000). 따라서 관계나 관계를 근거로 한 집단을 중요시하였고, 대인간의 지켜야할 윤리를 지키는 것이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으로 여겨 한국이나 일본의 문화권에서의 자기는 상호의존적이거나 관계적인 특성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람됨됨이 판단 준거가 무엇이고, 이러한 판단 준거를 위반했을 때 표출되는 타인 비판적인 도덕적 정서인 화와, 화 관련 귀인 차원(예를 들면, 비난이나 책임) 및 타인들의 평가의 관계와 화의 심리적 기능을 분석하고자 했다.

한국문화에서의 사람됨됨이

일반적으로 문화권마다 '사람은 어떠해야 한다'라는 가정이나 전제가 있어왔다(조궁호, 1990, 2003; 한규석, 최송현, 정욱, 배재창, 2004; Barresi, 1999; Taylor, 1998). 사람됨의 규정은 심리학 분야에서 대인지각이나 인상형성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는데, 인상형성이나 대인지각의 중요한 차원은 주로 성격적 특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최근 김의철과 박영신(2004)의 한국 사람에 대한 표상 연구에서도 한국 사람에 대한 지각의 차원을 인정, 착함, 단결력, 근면 등의 성격적 특질로 요약하고 있다. 한국 사람의 부정적 특질로는 이기적임, 도덕성 결여, 조급성과 체면/권력 지향 등을 들고 있고, 긍정적 측면으로는 인정, 착함, 단결력과 근면 등을 들고 있다.

또한 한규석 등(2004)은 한국 사회에서 사람 판단의 준거로 된/못된 차원과 난/못난 차원으로 구분하여 도덕성과 능력을 판단 준거로 보았는데, 된 사람의 판단은 대인관계적 측면과 삶의 자세로, 난 사람의 판단은 능력과 삶의 자세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한규석 등은 한국사회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사람 판단의 준거에서 삶의 자세가 중요한 준거로 작용하지만 대인관계 준거도 자세만큼 중요성을 지닌 것으로 보았고,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특징을 모호한 집단주의 문화의 실체로서 관계주의의 발현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는 능력보다 도덕성이 중요한 사람판단의 준거로 보았다.

최상진(2000)은 한국 문화에서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도리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하는데, 인간으로서의 도리는 사람 됨됨이라는 도덕적 인격과 연계되는 행위의 도덕적 규범으로 보

있고, 도덕적 인격이 결핍된 사람을 '나쁜 사람' 또는 '못된 놈'이라 부르며, 그 반대로 도덕적 인격이 갖추어진 사람을 '좋은 사람' 또는 '괜찮은 놈'이라 부른다. 유교문화권인 한국에서 좋은 사람은 도덕적인 인격을 갖춘 사람을 뜻하며, 유교에서 도덕적인 인격을 갖춘 사람은 예의염치(禮義廉恥)를 이는 사람으로 보았다(김시업, 김기범, 2003; 최상진, 김기범, 2000). 인간으로서의 도리는 양심과 관계된 것으로, 도리에 맞는 행동을 했을 때 떳떳한 감정을, 반대로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고 스스로 믿을 때 떳떳하지 못한 감정 즉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

최상진 등(2000)은 한국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예(禮)를 못 갖추거나 의(義)를 행하지 않거나 염치(廉恥)가 없는 행위를 했을 때 사람답지 못함과 부끄러움을 느끼며, 그러한 사람을 일컬어 나쁜 사람으로 평가받는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나쁜 사람으로 평가받지 않기 위해 사람들은 사회 구성원들의 기대와 가치 및 규범을 내면화하고 기대에 부응하는 혹은 규범에 따르는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나 규범을 위반했을 때,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와 사회적 기대와의 합치 여부에 대한 자의식이나 자기 인식이 개입되어 규범이나 기대의 못 미치는 데서 오는 수치감 즉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된다(김기범, 김양하, 2004). 반면에 그러한 행위자에 대한 관찰자의 평가는 비판적이어서 비난이나 힐난을 하게 되고 이는 화를 촉발하게 된다(Harre & Gillett, 1994).

한편 중학교 도덕 교과서에서는 사람됨됨이의 차원을 난 사람과 된 사람으로 보고 있는데, 난 사람은 많은 재산을 가지거나, 눈에 띄는 활동을 하는 사회적으로 이름난 사람으로,

된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으로 착한 마음을 지니고 도리를 다하는 인간미가 넘치고 인간으로서 성숙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움직일 수 있는 된 사람이 이상적인 것으로 집필되어 있다(또한 한규석 등, 2004 참조).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 보면, 한국 문화에서는 사람됨의 판단 준거는 대인관계 차원을 중심으로 한 도덕성이 중요한 차원임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대인간의 윤리를 지키는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사람으로 평가받게 되고, 이는 심리적으로 순기능을 갖게되어 사회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나 좋은 인상을 형성하고자 하는 욕구의 발로로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거나 그러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노력하게 된다.

서구 문화권에서는 사람(person)을 심리학적 범주로, 인간(human being)을 생물학적 존재로 보았고, 역사적으로 사람이라는 용어는 합리적, 이성적 본질을 갖는 개체로 정의되어 왔다(Boethius, fifth century AD, Barresi, 1999에서 재인용). 이러한 정의는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비롯되었고, 이후 Locke¹⁾에 의해 확장되었다. Locke는 또한 형이상학적 사람됨(personhood) 보다는 도덕적인 기준에 더 관심을 기울였다. 이

1) Locke(1694/1975)는 개별적 이성적인 존재 또는 지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고전적 정의를 뛰어 넘었다. 데카르트에 의해 시작된 이 전통을 좇아 그는 이성적 존재가 사고와 지각의 행위에서 그 자신을 의식할 수 있으며, 그 자신을 사고와 지각의 대상으로 지각할 수 있고, 그 자신을 다른 시간 및 장소에서 다른 경험을 했던 것과 동일한 자아(self)로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는 사람을 자아(self)에 대한 이름으로 규정하였다.

후 Dennett(1978)는 사람됨의 첫 번째 조건을 ‘이성적 존재’로 보았다(Barresi, 1999에서 재인용). 서구의 이러한 사상적, 역사적 배경은 사람됨의 준거에서 개인의 이성과 합리를 강조하게 되었고, 이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권리와 독립성을 강조하는 개인주의 사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김의철, 2000; 조궁호, 2003; Barresi, 1999; Burr, 2002). 그러나 심리학 분야에서 사람됨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고, 지각이나 개인의 심리적 특성 혹은 도덕적 판단 분야에서 간간히 언급되는 정도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람됨의 준거에서의 동, 서양의 차이와 유사성을 도덕적 판단 영역에 국한시켜 논의하고자 했다.

도덕적 판단과 정서의 관계

모든 사회에는 사회 구성원들이 준수해야 하는 규범 즉, 행동이나 태도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한국인들은 사회적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전통 동양사회에서 일차적으로 중요하게 여겨 온 덕목이 정의(正義)가 아니라 조화였고, 유교에서의 관계 중심적 도덕성과 윤리에 기인한다(이승환, 1998). 그러나 한국 사람들이 자신들이 직접 개입되거나 관련된 행동이나 태도가 사회적 요구 혹은 가치와 상반될 때에는 주관적인 태도나 가치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비교적 일관적인 사회적 요구나 가치와는 달리 개인적 가치나 태도는 상황과 개인적 욕구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김시엽과 김기범(2003)은 도덕적 판단과 정서에 관한 연구에서, 도덕성에 관한 서구 심리학의 개체발생적인 인지-구조적 접근을 비판하

고 도덕적 추론과정에서의 사회의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문화적 맥락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또한 각 문화맥락에서의 자기개념과 대인관계 상호작용에 따라 도덕적 추론 및 판단이 다르게 형성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도덕적 자기로서 염치를 들었다. 즉 부끄러움을 이는 마음으로서의 염치는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 혹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과 관련된 것으로, 이러한 인간관과 세계관이 도덕적 판단의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세상을 보는 관점은 도덕적 추론(왜 어떤 행동이 옳은지 혹은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에 기여하는 전제들을 제공한다고 보았다.²⁾

지금까지 도덕성에 관한 Piaget나 Kohlberg 등의 인지발달적인 관점과는 달리 Turiel(1983b)은 영역 이론을 주장하였는데, 도덕과 관습이 Kohlberg가 지적한 것처럼 도덕적 발달 단계에서 분리되어 도덕이 관습보다 우선한다는 관점과는 달리, 두 가지의 개념이 사회적 지식의 범주 안에 들어있는 서로 다른 영역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도덕성과 사회 관습이 매우 복잡한 관계에 있으며, 이들을 다른 영역이 별개의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떠한 행동이 타인에게 피해나 해를 주어 비도덕적인 행동으로 판단될 수 있으나, 어느 특정 문화권에서는 그러한 행동이 관습적이어서 비도덕적인 행동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Turiel도 그러한 점을 인정하고 각 영역이 혼합되어

2) ‘A human heart, as well as human reason, is needed for the understanding of morality, and the heart’s responses are to particular persons, not to universal principles of abstract justice (Baier, 1987, p. 41, Denham, 2002에서 재인용)’.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도덕성에 관한 문화비교 연구들이 등장하면서 문화에 따라 도덕적 판단 준거를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경험적 연구들이 보고되었는데, 그 중 Shweder(1991)는 도덕성의 영역이 많은 문화권에서 상해(harm), 권리(rights)나 정의(justice)의 개념을 뛰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또한 도덕성의 영역은 서구 문화권에서는 자율(autonomy)의 논리에 제한되어져 왔으나 다른 문화권에서는 더 넓은 개념으로 받아진다고 보았다. 그는 따라서 도덕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접근하게 위해 사용되는 세 가지의 두드러진 윤리들을 제안하였는데, 공동체 윤리(ethics of community), 자율성의 윤리(ethics of autonomy)와 신성의 윤리(ethics of divinity)가 그것들이다(또한 Callahan, 2002; Shweder & Haidt, 1993). 또한 그는 이러한 세 가지의 윤리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Rozin, Lowery, Imada와 Haidt(1999)는 타인 의식적인 정서와 세 가지 윤리와의 관계를 논하면서, 경멸이나 모욕은 공동체 윤리를 어겼을 때(예를 들면, 옷어른에 대한 공경, 의무감이나 서열) 나타나고, 화는 개인의 권리나 자유를 침해했을 때 일어나는 도덕적 정서로 자율의 윤리를 위반했을 때 나타난다고 가정하고 있다.³⁾

또한 1980년대 이후 도덕성에 관련된 연구 중 많은 관심을 모았던 주제들은 도덕성의 정서적 토대에 관한 연구들이었는데, 자의식적⁴⁾

이고 자기 지향적인 정서군으로 부끄러움과 죄책감 및 당황스러움이, 타인 비판적인 정서군으로 경멸이나 모욕(contempt), 화(anger)와 혐오스러움(disgust)이 있다(Rozin et. al., 1999). 전자의 경우 김시업 등(2003)과 김경희(2002), 김기범 등(2004)은 한국 문화에서 부끄러움과 죄책감에 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인들이 대인관계 윤리를 지키지 못했을 때 혹은 상대방의 기대에 어긋났을 때 사회적으로 부끄럽고 자기 스스로도 부끄러움을 의식하게 된다는 자의식적 정서로서의 부끄러움과 죄책감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정서는 사람들이 특정한 맥락에서 도덕적 특성을 구별하고, 도덕적 행위를 동기화하며 비도덕적 행위를 방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행위를 보고 죄책감이나 부끄러움 혹은 분노를 느낀다면 이것은 그 사람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가치를 위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김기범, 김양하, 2004). 따라서, 도덕적 규칙이 심리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일 수 있는 하나의 지표는 도덕 규범에 대한 지식, 규범에 따른 행동, 도덕적 추론 등이 아니라 도덕적 정서라 할 수 있다(Montada, 1993).

도덕적 화(火)와 화의 준거

화 감정은 일반적으로 도덕적 정서로 분류되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도덕적 정서의 한 형태로 보는 연구들(Rozin, et al, 1999; Tangney, Wagner, Fletcher, & Gramzow, 1992; Tangney, Wagner, & Hill-Barlow, 1996)이 나타나고 있다.

Stearns(1995)는 화의 표현이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화를 내는 대상이 누구인지, 사적인 자리인지

3) 또한 그들은 신성의 윤리를 위반했을 때 혐오감이나 메스꺼움(disgust)을 느낄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4) 도덕성에 관련된 정서는 각 개인의 자기에 대한 평가와 이해에 기본적인기 때문에 자의식적 정서(self-conscious emotion)라 불린다(Eisenberg, 2000).

공적인 자리인지, 그리고 잘못된 행위의 크기나 본질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도덕적 판단과 관련된 화는 잘못된 행위를 보고 그 행위의 피해의 크기나 무엇을 잘못했는가 등에 따라 표현되는 정서라 할 수 있다. 화 표현은 따라서 내적 상태로서의 정서의 표출이라기 보다는 그 사회의 권리와 책임 즉 도덕적 관례속에서 문화적이고 규범적인 양식에 따라 나타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화를 내는 것은 타인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이 개입된다는 것이다 (Harre & Gillett, 1994).

최상진(2000)은 화가 어떠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불쾌한 감정적 상태를 지칭하고, 화가 발생하는 이유로는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인과적 맥락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한국 문화에서 이러한 인과적 맥락은 좌절경험을 했을 때,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을 때, 상대방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자신이나 내집단 성원이 피해를 입었을 때, 자신이 부당하게 대우받았을 때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Stearns, Harre와 Gillett, 그리고 최상진 등의 연구에서 화를 경험하거나 표현하는 사회문화적 맥락 중에 잘못됨에 대한 판단과 사람으로서의 도리 등은 도덕적 판단이 개입되는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규범을 어겼을 때 흔히 말하거나 듣게 되는 말은 “나쁜 0”, “똥된 0” 등으로 사람으로서 할 도리를 다 하지 못할 때 비난하거나 경멸하게 된다. 이러한 말은 화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자 도덕적 평가와 판단에 따른 일상적 언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도덕적 영역(domain or code)을 위반했음을 전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도덕적 감정으로서의 화는 서구 문화권에서 개인의 권리나 자유 등이 침해받을 때 나타나는 것으로, 서구 문화권의 개

인주의와 자유주의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Rozin, et al, 1999). 그러나 집단이나 조직에서의 개인의 의무나 관계를 중요시하는 집합주의 문화권에서는 집단이나 공동체의 위계질서나 예 등을 위반했을 때 분노나 화의 도덕적 감정을 표출하게 된다. 이러한 전제는 결국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즉 개인의 권리나 자유를 강조하는 그리고 사람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서구의 인간관과, 관계를 중요시하고 관계윤리를 지켜야만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게 된다는 집합주의 문화권의 인간관을 반영하고 있다.

요약하면, 한국 문화에서 타인의 규범 위반 행위에 대한 도덕적 평가에 수반된 화 관련 정서 표현의 형태는 ‘나쁜’, ‘똥된’, ‘어떻게 그럴 수가’, ‘짐승만도 못한’, ‘기막힐 노릇’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평가적 정서 표현은 사람으로서 혹은 인간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다하지 못한 기준에 의한 것이며, 이러한 정서 발현과 기준이 통합되어 도덕적 화를 불러일으키게 된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어떠한 사건이나 행위에 대한 평가, 특히 부정적 사건이나 위반 행위에 대한 평가는 도덕적 판단 준거에 의해 평가자 혹은 판단자의 내재된 준거에 의해 도덕적인지 혹은 비도덕적인지 판단되고, 이는 기능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심리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도덕적 정서(부끄러움, 화 등)는 판단을 촉발하고 그 판단의 준거는 사회문화적인 가치나 태도 등 사회적 제도나 실천행위 속에 내재되어 있으며 심리적 기능을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사회규범을 위반하는 타인을 보고 비판하는데서 비롯되는 도덕적 정서인 화가 어떠한 상황에서 무슨 이유로 발

생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또한 타인의 위반 행위가 어떠한 화 관련 정서를 유발시키는지, 그리고 그러한 화 관련 정서를 유발시키는 개인적, 대인관계적 맥락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했다.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들은 두 차례의 FGI와 개별 면접을 실시하고자 했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화 유발 상황을 두 가지 차원(대인관계 윤리와 자율성)으로 구분하여 각 상황에 따른 화 감정의 차이와 귀인 및 심리적 기능에서의 차이를 실험적으로 알아보려고 하였다.

연구 1

연구 1에서는 FGI와 개별 면접을 통해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어겼을 때' 그 위반자에 대한 평가 및 정서적 반응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방법

본 연구는 타인의 혹은 자신의 위반행위에 대해 화 관련 정서가 나타나는 지와 화 관련 정서가 어떠한 도덕적 판단 준거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정서발생 상황과 판단 준거에 개입되는 맥락을 알아보기 위해 두 차례의 FGI와 개별 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

면접대상자는 서울 소재 C대학의 심리학 전공을 수강하는 3학년 학생들이었다. 1차 FGI는 모두 6명(남자 1명, 여자 5명)이 참여하였고 2

차 FGI에서는 남자 2명, 여자 6명 등 총 8명이 참여하였다. 개별면접은 모두 31명(평균 연령 22세)이었으며, 남학생은 6명(약 25세), 여학생은 25명(22세)이었다. 조사기간은 2003년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였다.

도구 및 절차

면접 도구는 본 연구자들이 Haidt 등(1993)과 김시업 등(2003)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FGI 면접 도구와 개별 면접 도구를 개발하여 실시하였다. 첫 번째 FGI는 규범 위반 상황에서 발현되는 정서적 반응과 그 이유를 알아보려고 실시되었고, 두 번째 FGI에서는 도덕적인 화가 일어나는 상황과 화를 내게 된 이유를 알아보았다. FGI와 개별 면접은 한 명의 대학원생이 실시하였고, 모두 사전동의를 얻어 녹음되었다. 두 번에 걸친 FGI의 평균 소요시간은 약 1시간 15분이었고, 개별 면접은 평균 10분 내외였다.

개별면접에서 연구자들이 질문한 문항들은 크게 세 범주로 나뉘는데, 첫 번째로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될 일(짓)을 한 경우와 그러한 일에 대한 느낌과 이유를 물어보았고, 두 번째로 타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를 본 경우와 그러한 사람(일)에 대한 느낌 및 이유를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면접 대상자가 잘못하여 타인들이 화를 낸 경우와 그 이유를 알아보았다.

분석방법

FGI 자료와 면접 자료는 질적 분석내용 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자료별로 주제를 설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자들이 토론을 거쳐 분

석 결과를 비교 검토하였다. 면접 분석은 응답 내용을 모두 기록한 후 1차적으로 세 명의 연구 조원 각자가 같은 뜻을 가진 내용들을 범주화하였고 이를 서로 비교한 후 일치도를 계산하였다. 1차 분석에서의 일치도는 75%였다. 그리고 나서 토론을 거쳐 각자 분석한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다시 범주화하였다. 2차 분석에서도 1차 분석과 마찬가지로 진행되었고(2차 분석의 신뢰도 85%), 최종 분석(3차 분석의 신뢰도 93%)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분석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토대로 추출된 범주간의 관계나 배타성을 고려하여 상위 범주화하거나 배타적인 범주로 확정하였다.

결과 및 논의

개별면접결과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어기는 상황과 정서적 반응을 분석한 결과, 인간의 권리나 인권 등 인간성 침해보다 관계윤리가 두 배에 가깝게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 사회에서 기본이 되는 도덕적 준거가 관계 윤리이며 그러한 관계윤리를 지키지 않았을 때 사람됨됨이를 평가받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단일한 사례로서는 특히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도리와 관련된 응답이 12개로, 전체의 25%나 차지하고 있다.

그러한 인간의 도리 위반 행위에 대한 정서적 반응은 화 관련 정서(2차적 화 포함)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전체 68가지 중 48개), 다음으로 경멸 관련 정서와 당황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람됨됨이에 못 미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화를 불러일으킨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그 이유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러한

평가의 이유로 인간성을 침해했거나, 사회윤리를 저버리고, 몰염치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역할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에, 관계 규범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등 일반적으로 사람으로서 지켜야 하는 도리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지켜야 하는 규범을 어겼을 때 화 관련 정서가 표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타인들의 잘못된 행동들은 크게 9개의 범주로 나뉘었는데, 공동체 윤리(대인, 관계, 공동도덕, 사회 윤리, 역할 기대 등)와 개인의 권리 범주의 두 범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러한 위반 행위들에 대한 평가는 화를 내거나, 경멸하거나, 미워하거나 혹은 당황스러움 등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를 보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해서 피해를 보거나 불편하기 때문에, 공동체 윤리를 위반했기 때문에 등이 주요 이유로 나타났다. 따라서 타인의 위반 행위에 대한 도덕적 평가는 관여자나 당사자에게 심리적 영향을 줄 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타인이 화를 내는 상황은 주로 화를 내는 사람들이 주변의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화를 내는 이유도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걱정하거나 나무라기 위해 화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도덕적 평가(정서)로서의 화는 한국 사회에서 공동체 윤리(사회규범, 대인관계 윤리 등)나 개인의 자유나 권리 등 자율성 윤리를 위반했을 때 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고, 화를 내는 직접적인 이유는 자기가 관여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며, 그러한 자기 관여는 피해나 불편, 상대방의 동기나 상대방에 대한 기대 등의 맥락이 관여되어 있다. 그러나 도덕적 평가에 따른 화의 표출이나 표현은 매우 다양하게

표 1. 개별면접 결과

면접항목	주	체	빈도	비고
사람됨	1. 관계윤리: 예) 선배에게 몰염치(1), 패륜(1), 아동학대(2) 등		19(40.4%)	총 반응수 47
	2. 인간성 침해: 예) 전생2), 심한 폭력1), 살인1), 성폭행2) 등		11(23.4%)	
	3. 사회윤리: 예) 노동자 부당처우2), 일반 범죄1) 등		9(19.2%)	
	4. 역할기대: 예) 선생의 학생모독(1), 성직자들의 타락(1) 등		5(10.6%)	
	5. 이기주의: 예) 이기적1), 공동생활에서 이기적1) 등		3(6.4%)	
평가/느낌	1. 화 관련 정서: 예) 화(17), 분노(2), 열받음(3), 울컥(3) 등		40(58.8%)	총 반응수 68
	2. 경멸: 예) 경멸(1), 한심(1), 싸가지 없다(1) 등		9(13.2%)	
	3. 2차적 화 정서: 예) 허탈1), 회의감2), 답답2) 등		8(11.8%)	
	4. 당황: 예) 당황(1), 기막힘(1), 어이없음(2) 등		5(7.4%)	
	5. 놀람: 예) 놀람(1), 충격(1) 등		6(8.8%)	
이유	1. 인간성 침해: 예) 인격모독(1), 짐승과 같다(4), 상식밖(5) 등		13(30.9%)	총 반응수 42
	2. 사회윤리: 예) 빈익빈 부익부(2), 먹는 걸로 속임(1) 등		6(14.3%)	
	3. 자기관여: 예) 같은 여자로서1), 내 일 같다1) 등		6(14.3%)	
	4. 몰염치: 예) 뻔뻔(2), 잘못을 누우치지 않음(2) 등		6(14.3%)	
	5. 이기주의: 일방적(1), 금전만능주의(1) 등		5(11.9%)	
	6. 역할기대: 알만한 사람들이 그러다니3) 등		3(7.1%)	
	7. 관계규범: 염치없다(1), 가족의무 방치(2) 등		3(7.1%)	
잘못된 행동 (타인)	1. 대인윤리: 예) 약속어김(8), 무책임(6), 흥보기(4) 등		33(29.5%)	총 반응수 112개
	2. 관계윤리: 예) 버릇없음(6), 선배의 횡포(5), 후배의 무례(5) 등		32(28.6%)	
	3. 공중도덕: 배려없음(5), 길에 침뱉기(3), 길가 흡연(1) 등		15(13.4%)	
	4. 개인의 권리: 술강요(3), 의견묵살(3), 성차별(3) 등		13(11.6%)	
	5. 몰염치: 뻔뻔(8), 핑계 변명(4) 등		12(10.7%)	
	6. 사회윤리: 영별이 구타(1), 병역거부(1), 도난(1) 등		6(5.4%)	
	7. 이기주의: 이해타산적 행동(4)		4(3.6%)	
	8. 역할기대: 교사의 화풀이 체벌(1), 관료적 자세(1) d) 대중교통		2(1.8%) 32(28.6%)	
이유	1. 공중도덕: 예) 배려없음(5), 더럽다(5), 분위기 해침(6) 등		28(18.5%)	총 반응수 151 기타 7
	2. 개인의 권리: 예) 피해 불판(16), 도덕(4), 부당(3) 등		24(15.9%)	
	3. 대인윤리: 예) 속임(2), 모욕(3), 야단(4), 책임전가(4) 등		24(15.9%)	
	4. 관계윤리: 예) 뒷사람 무안(4), 인륜무시(3), 지위 악용(4) 등		21(13.9%)	
	5. 몰염치: 예) 뻔뻔함(7), 적반하장(5), 뻔히 알면서(5) 등		20(13.3%)	
	6. 자기관여: 자격지심(1), 나는 안 그러니까(3), 나와 다름(4) 등		10(6.6%)	
	7. 이기주의		7(4.6%)	
	8. 앞뺨: 참아야만 하는 상황이어서		7(4.6%)	
	9. 역할기대		3(1.9%)	
평가/느낌	1. 화 관련 정서		94(50.8%)	총 반응수 185
	2. 2차적 화 관련 정서		27(14.6%)	
	3. 미움(hatred)		26(14.1%)	
	4. 당황		15(8.1%)	
	5. 경멸 관련 정서		14(7.6%)	
	6. 실망		7(3.8%)	
	7. 놀람		2(1.1%)	
잘못된 행동 (본인)	나에게 화낸 사람			총 반응수 24
	1. 친구		12(50.0%)	
	2. 가족 친지		10(41.7%)	
이유	3. 기타		2(8.3%)	총 반응수 24
	1. 나를 나무랄려고		10(41.7%)	
	2. 나를 걱정해서 위해서		10(41.7%)	
3. 나와 친해서		4(16.7%)		

나타났는데, 주로 1차적 정서로서의 화의 형태와 화의 전제 형태로서의 경멸성 관련 정서, 그리고 2차적 정서로서의 화 관련 정서군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사람됨을 벗어난 상황에 대한 정서로서 화 관련 정서에서는, '분노'나 '속이 뚫어오른다'거나 '억장이 무너진다'와 같이 강한 정서 표현이 나타났고, 아울러 '응분의 댓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와 같은 강한 직접적 비난 역시 높은 비율(전체 화 관련 정서 중 11.76%)을 차지했다. 반면, 일반적으로 잘못된 타인의 행동에 대한 정서로서의 화 관련 정서에서는, 화(19.5%) 다음으로 짜증(13.0%)이 난다는 반응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외에도 '거슬린다'거나 '불쾌하다', '불편하다'는 등과 같이 사람됨 위반 상황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다소 누그러진 형태의 정서 반응/표현이 나타났다.

한편, 2차적 화 관련 정서에서도, 인간됨 위반 상황에서는 '살기 싫어진다'를 비롯해 '무력감'과 '허탈감', '회의감' 및 '원망' 등의 응답이 주를 이룬 반면, 일반적인 타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응답에서의 2차적 화 관련 정서로는 '더럽다'를 비롯, '답답함'이나 '억울함' 등이 주를 이루었다.

그밖에도 인간됨 위반 상황에 대한 정서 반응들 중, 놀람 관련 정서들을 살펴보면, 비록 이 정서군이 전체 반응 가운데 그다지 높지 않은 비율(8.8%)을 차지하였기는 하나, '소름끼친다'거나 '무섭다', '미쳤다' 등과 같은 응답을 포함하고 있었던 것에 반해, 일반적인 타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반응에서는 놀람 관련 정서가 단지 1.1%의 낮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앞서와 같은 강도 높은 표현 역시 언급되지 않았다.

FGI 1: 규범 위반상황에서의 정서적 반응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행동 중 사람으로서 할 바를 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 이야기를 하도록 요구한 상황에서, FGI에 참석한 대학생들은 '아동성추행', '이라크 전쟁', '선생님의 제자와의 결혼 문제', '윈습강요(장유유서)', '친형제자매와의 싸움', '공중 도덕 위반' 등 다양한 이야기를 하였고, 그러한 행동에 대한 평가나 정서적 반응은 '사람같지 않다', '당한 것만큼 갚아주었으면...!', '살기가 싫어졌어요', '짜증이 나서..!', '나쁜 사람', '망나니', '한심한 놈', '싫긴 하지만...!', '너무하다!', '참을 수 없다', '열이 오르고...!', '뻔뻔하다' 등 일반적으로 화가 난다고 했다. 물론 연구자들이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어겼을 때라는 질문을 했으나 그 위반 상황들은 다양하게 나타났다는데, 주로 대인관계 윤리나, 인본주의, 사회규범과 공중도덕 등을 지키지 않는 상황들이었고, 이러한 타인의 위반 행위에 대한 공통적인 평가는 '화가 난다'라는 화 차원 정서적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토론 결과를 유추해냈다.

FGI 2: 화가 나는 규범 위반상황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나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FGI 실시 결과,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일 때', '책임 회피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을 때'와 '내가 피해를 볼 때' 등으로 나타났고, 그 이유로는 개인의 이기적 동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발생한다는 공통된 의견으로 수렴되었다. 즉, 화가 나는 상황과 이유는 비교적 여러 가지였으나 공통적으로 '.....해서 결국 누군가가 피해를 보게

될 때 화가 난다'라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부정적이면서 자기가 개입된 심리적 영향(consequences)으로 화가 난다고 분석해 볼 수 있다.

연구 2

연구 2에서는 사람됨 위반 준거를 대인관계 윤리와 개인의 자율성의 윤리의 두 차원에서 귀인, 평가 및 기능에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서구와 동양의 문화권의 도덕성의 차이에 관한 연구들은 서구 문화권을 자율성의 도덕성으로 동양 문화권을 공동체 윤리로 구분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도 두 차원에 따른 도덕적 평가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자 했다.

방법

연구 1의 면접과 FGI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람됨 위반 준거 상황을 공동체 윤리와 개인 자율성의 윤리 상황으로 각각 두 가지씩 스크립트화하여 피험자들에게 읽고 반응하도록 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설계는 피험자간 방안을 사용하였다.

실험대상자

서울과 경기도 소재 종합대학에 다니는 대학생 300명(남 150명, 여 15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22세(남 23세, 여 22세)였다. 본 연구는 피험자간 방안을 사용하였는데, 각 상황별로 남, 녀

대학생 약 30명씩 참가하였다.

실험도구 및 절차

상황 스크립트는 대인관계 윤리 위반 상황 두 가지와 개인 자율성에 관한 상황 두 가지로 구성되었다. 스크립트는 사람됨 위반 준거를 대인관계 윤리를 중심으로 이와 상충되는 개인 자율성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는데, 대인관계 윤리 상황은 아버지를 살해하는 아들에 관한 실제 사건을 재구성한 패륜 범죄 상황과 친구와의 약속을 어긴 사람에 관한 상황 두 가지로 설정하였고, 개인 자율성은 학교 선생님이 짧은 치마를 입고 등교하는 상황과 친구들과 식사 때 개인이 선호하는 음식을 주문하는 상황으로 설정하였다.

대인관계 윤리 중 패륜 범죄 상황을 설정한 이유는 면접 결과 대인관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부모자녀 관계이고, 도덕적 정서이자 타인 비판적인 정서인 화를 극명하게 활성화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상황이 구성적으로 대인관계 윤리 위반으로서 타당평가의 문제는 스크립트를 읽고 난 후 자유 응답식으로 정서 반응을 기술하도록 한 내용과 화 반응 정도를 측정할 결과를 통해 적절성을 평가해 볼 수 있다.

정서 반응에 대한 자유 응답에서 두 상황 모두 화가 난다는 반응이 주로 나타났고, 화 반응 측정치에서도 비록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났지만 5점 척도 상에서 두 상황 모두 평균 4점 이상으로 나타났고 두 가지 자율성 상황 측정치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대인관계 윤리 위반 상황으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각 상황은 간단한 단문 형식과 단락 형식의

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스크립트는 다음과 같다:

대인관계 윤리 위반 상황

1. K 씨는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되자 아버지를 살해하여 마당에 암매장하였다.
2. K 씨는 친구와 약속을 했는데, 약속 장소에 1시간이나 늦게 도착해놓고도 미안하단 말을 하지 않았다.

자율성

3. K 양은 사범대학에 재학 중일 때 교생실습을 나가게 되었다. 하루는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학교에 갔는데, 교감 선생님께서 “선생님이 그런 옷을 입고 출근하다니!” 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4. K는 친구들과 저녁을 먹으러 중국 음식점에 갔다. 다들 식사를 하고 있는데, K가 중국 음식은 제대로 된 요리 집에 가서 먹어야 하는데라며 불평했다.

피험자들은 한 가지 스크립트를 읽고 난 후 스크립트 상의 행위자에 대해 관찰자 시각에서 화의 정도와 위반 행위에 대한 판단 및 평가(비난, 피해 및 책임 귀인, 자기 평가, 타인에 의한 평가, 행위자 관점에서 행동 억제, 행동억제의 이유 등)를 Likert 5 점 척도 상에서 평가하도록 요구되었다. 더불어 피험자들은 기본적인 인구학적 특성들을 기술하도록 요구되었다.

연구설계 및 분석

본 연구는 두 가지 영역과 남, 녀 성차에 의한 2x2 요인방안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차이검

증을 주로 실시하였고, 상관관계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질적 자료는 대학생 3인이 유사한 단어를 일차적으로 범주화하여 분석자간 신뢰도를 측정하였는데, 2차 분석에서는 1차 때 의견일치 되지 않은 범주화를 토론을 거쳐 재범주화를 시도하였으며, 3차 분석에서 최종 범주화를 실시하였다. 1차 분석시 3자간 일치도는 .71였고, 2차에는 .85, 최종적으로 .94의 일치율을 보였다.

결과 및 논의

영역별 화 반응 차이

화가 나는 정도를 영역별로 차이검증을 해본 결과, 대인관계 윤리와 자율성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F(1, 212) = 94.40, p < .001$), 대인관계 윤리 위반($M = 4.30$)이 자율성($M = 2.90$)보다 높아 대인관계 윤리 위반이 자율성 침해보다 화가 더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 녀 성차는 없었다. 세부적으로 각 상황별 화 반응 정도의 차이를 분석했을 때,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상황별 화 반응에서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3, 212) = 62.68, p < .001$). Scheffe 사후 검증 결과, 상황 1이 나머지 세 상황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상황 2는 자율성 상황 3, 4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황 3도 4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황과 성별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F(2, 212) = 2.82, p < .05$) 일정한 유형을 보이고 있지는 않았다.

흥미로운 것은 자율성 차원에서 화 반응에

표 2. 상황별 화 반응 평균 및 표준편차

성별	유형	대인관계 윤리		자율성	
		패륜범죄	대인관계	개인자율	개인선호
남 자		4.60(.93)	3.90(.80)	1.76(1.00)	3.60(1.00)
여 자		4.40(.72)	4.29(.71)	2.48(1.12)	3.48(.98)
총		4.50(.83)	4.09(.78)	2.12(1.11)	3.54(.98)

서 친구들과의 식사 때 개인의 취향을 드러내는 것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상호간에 불쾌감이나 비난받을 소지가 있어 화 반응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자율이나 선호도 타인에게 불편이나 피해를 끼쳤을 경우 대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피험자들에게 화가 난 이유에 대해 자유 반응식으로 기술하도록 하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인관계 윤리 중 패륜범죄에서는 반인륜적 행위이기 때문에 화가 났다는 내용이 가장 많았고, 친구와의 약

속을 어긴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화가 났다는 응답이 주를 이루었다. 화 반응이 가장 낮게 나타났던 자율성 차원의 선생님의 복장에 대한 스크립트에서 화가 난 이유는 단지 교육자로서의 태도에 부적절하다는 반응만이 나타났는데,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더 많이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간에 개인의 선호도나 취향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화가 나는 이유로는 타인을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화 반응

표 3. 상황별 화가 난 이유 반응 내용

	패륜범죄	대인관계	개인자율	개인선호				
남 자	반인륜적 행위	14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9	교육자의 태도에	타인을 배려		
	규범위반(살인)	8	사과를 하지 않아서	7	부적절	2	하지 않음	18
	돈 때문에 그런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유별나다	2
	행동을 한 것	6	않음(예의 없음)	5				
			시간을 뺏았기 때문 (피해를 주어서)	3				
		잘못을 인정치 않아서	2					
여 자	반인륜행위	11	사과를 하지 않아서	17	교육자의 태도에	타인을 배려		
	돈 때문에 그런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부적절	9	하지 않음	18
	행동을 한 것	11	않음(예의 없음)	7			선택한 행동에	
	규범위반(살인)	4	약속을 어겼기 때문	3			대해 지나고 나서	
		신의를 저버려서	1			불평하기 때문	5	

표 4. 화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회귀분석 결과(대인관계 윤리 영역)

종속변인	예측변인	R	R ²	조정된 R ²	β	t
화	비난	.48	.23	.22	.42	5.25***
	피해	.56	.31	.30	.29	3.68***

*** $p < .001$

정도를 예측하는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인관계 윤리 영역에서는 비난과 피해가 유의미한 예측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보다는 비난 정도가 화를 더 많이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율성 영역의 경우, 반대의 결과가 나왔는데, 비난($R^2 = .60, \beta = .48, t = 4.29, p < .001$)보다는 피해($R^2 = .04, \beta = .35, t = 3.09, p < .01$)가 화를 더 많이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인관계 윤리 영역의 경우 그 행위가 사회적 비난받을 것인가 화를 나게 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고, 자율성의 경우 개인의 자율적 행동이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경우 화를 나게 된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귀인 차원에 따른 차이

각 상황에 대한 비난, 피해 및 책임에 대한 귀인 정도를 측정하여 영역과 상황별로 차이를 분석하였다. 대인관계 윤리 위반 영역에서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화남은 비난($r = .48, p < .01$)과 비교적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피해 변인과는 $r = .38(p < .01)$, 책임과는 $r = .32(p < .01)$ 의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피해의 정도를 크게 지각할수록, 책임이 행위자에게 있을수록,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비난받아야 한다고 판단할수록 화를 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자율성 영역에서 화 반응은 비난과 높은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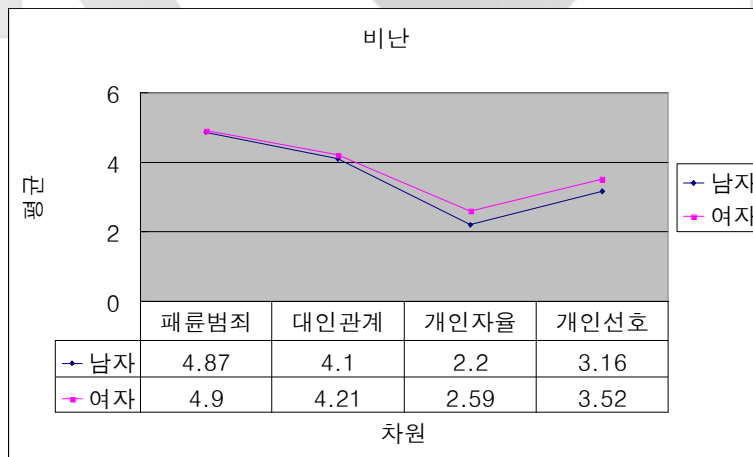


그림 1. 각 상황별 비난 반응 남녀 평균

관($r = .75, p < .01$)을 보였고, 피해와는 $r = .78(p < .01)$, 책임과는 $r = .52(p < .01)$ 의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였다. 화 반응치는 높지 않았으나 개인의 자율적 행동이 비난받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면 화가 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행위자에 대한 비난의 영역별 차이는 대인관계 윤리 위반에 대한 비난 정도($M = 4.53$)가 자율성 ($M = 2.88$)보다 높게 나타났다($F(1, 240) = 169.36, p < .001$).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상황별로는 패륜범죄 행위를 가장 비난 받을 행위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각 상황별 차이도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녀간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위로 인한 타인의 피해 평가에서는 영역별 차이와 남녀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영역별로는 대인관계 윤리 위반($M = 4.35$)이 자율성 차원($M = 3.14$)보다 타인에게 피해를 많이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F(1, 241) = 92.95, p < .001$), 여학생들($M = 3.92$)이 남학생($M = 3.57$)들보다 더 크게 지각하고 있는 것을 나타냈다($F(1, 241) = 7.49, p < .01$). 상황별로는 패륜범죄($M = 4.30$)와 대인관계 상황($M = 4.41$)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대인관계 상황에서 더 높은 반응을 보였고, 두 상황은 자율성 상황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나타났다.

피해에 대한 책임에서는 대인관계 차원($M = 4.26$)이 자율성 차원($M = 3.69$)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1, 240) = 19.07, p < .001$). 상황별로는 패륜범죄와 대인관계 약속위반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에 대한 책임이 같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 두 상황은 개인자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개인 선호 상황과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성 차원 중 개인 선호가 개인 자율보다 피해에 대한 책임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행위자에 대한 비난이 화를 내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행위자로 인해 타인의 피해가 클 때 그 책임 또한 행위자에게 있음을 암시하는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특히 자율적인 행위에 대한 비난이나 그 행위로 인한 피해 및 책임보다는 대인관계 윤리를 위반했을 때의 비난과 타인의 피해 및 책임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대인관계 윤리를 위반했을 때 비난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행위는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고 그 책임은 행위자에게 있는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행위자에 대한 평가

‘행위자 입장에서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반응은 영역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F(1, 240) = 89.36, p < .001$), 대인관계 윤리규범을 위반($M = 3.74$)했을 때 자율성 $M = 2.74$)보다 자기를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상황별로 보면, 대인관계 윤리 두 상황간의 차이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상황이 자율성 두 상황보다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율성 영역의 두 상황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패륜범죄자 입장에서 자신을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였고, 다음으로 대인관계 규범을 위반했을 때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한 행동에 대해 다른 사람들은 행위자를 어떻게 평가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반응에서는 영역별로 대인관계 윤리 위반으로 인한 타인의 부정적 평가($M = 4.59$)가 자율성($M = 3.5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1, 240) = 148.54, p < .01$). 각 상황별로는 패륜범죄,

대인관계, 개인선호, 개인자율의 순으로 타인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나타났는데, 개인 선호와 개인 자율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행위자 입장에서 자신을 평가한 것보다는 타인의 시선에서 평가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윤리 영역에서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M = 3.74$)가 타인의 부정적 평가($M = 4.59$)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t = -10.09, p < .001$), 각 상황별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자율성 영역에서도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M = 2.71$)가 타인의 부정적 평가($M = 3.55$)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t = -9.27, p < .001$), 각 상황별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화의 행동제지가능

도덕적 정서로서의 화의 심리적 기능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행동억제의 기능을 측정하였다. ‘앞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겠는가’라는 항목에 대한 반응은 영역별로 대인관

계 윤리 영역($M = 4.84$)이 자율성($M = 3.94$)보다 행동제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F(1, 240) = 57.64, p < .001$),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더 그럴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상황별로는 패륜범죄와 대인관계가 차이가 없었고, 대인관계와 개인선호가 차이가 없었으며, 패륜범죄와 대인관계가 개인자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인자율 상황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상황에서 행동억제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왜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지의 이유를 여덟 개의 항목으로 측정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행동억제 이유로는 양심의 가책, 자기 반성, 부끄러움, 자기의 부정적 평가, 타인의 부정적 평가, 사회규범 위반, 개인의 규범 위반, 타인에게 피해 등으로 측정하였다.

대인관계 영역에서는 사회규범을 위반이 행동억제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규범을 위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자율성 영역에서는 자기 반성과 타인 피해

표 5. 행동제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회귀분석 결과(대인관계 영역)

종속변인	예측변인	R	R ²	조정된 R ²	β	t
행동제지	사회규범	.34	.117	.11	.34	3.93***

*** $p < .001$

표 6. 행동제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회귀분석 결과(자율성 영역)

종속변인	예측변인	R	R ²	조정된 R ²	β	t
행동제지	자기반성	.64	.41	.40	.49	5.68***
	타인피해	.68	.46	.45	.26	3.02**

*** $p < .001$, ** $p < .01$

가 행동억제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스스로 그러한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행동이 남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을 억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종합하면, 타인 비판적인 도덕적 정서인 화는 대인관계 윤리 규범을 위반했을 때 개인의 자율적 행위보다 더 많이 경험되고, 행위에 대한 비난 및 책임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개인의 자율적 행위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행위로 평가받을 때 비판받을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 이러한 도덕적 평가에 따른 화 정서는 그 문화권이나 사회에서 '사람은 어떠해야 한다'는 준거를 위반했을 때 더욱 활성화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 문화에서는 된사람 즉 도덕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사람인데, 사람으로서의 도리는 대인관계 윤리와 규범을 지키는, 타인 배려적인 특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종합논의 및 제언

도덕적 평가는 도덕적 판단 준거에 의해 활성화되고 도덕적 판단 준거는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어 있다(Shweder & Haidt, 1993). 특히 한국 문화권에서는 대인관계 윤리를 위반했을 때 도덕적 정서로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러한 정서는 행위 위반자의 인간됨됨이를 조절하는 마음의 문제임을 지적한 선행 연구(김시업 등, 2003)와 비교해 볼 때, 도덕적 정서로서의 화 또한 근본적으로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 혹은 사람이란 어떠해야 하는가 라는 인간관

과 그러한 명제에 의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방식에 따른 세계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Harre & Gillett, 1994; Miller, 1997).

화 표현은 따라서 내적 상태로서의 정서의 표출이라기 보다는 그 사회의 권리와 책임 즉 도덕적 관례속에서 문화적이고 규범적인 양식에 따라 나타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고, 화를 내는 것은 타인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이 개입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Harre & Gillett, 1994).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도덕적 판단이 개입되는 상황이나 사건이 사람됨의 준거와 관련되고 이러한 사람됨의 준거를 크게 대인관계 윤리 측면과 개인의 자율성 차원으로 구분하여 이에 따른 화 반응과 도덕적 판단이나 평가 관련 문항들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사람됨의 준거와 타인 비판적인 도덕적 정서로서 화의 발생 상황과 화의 심리적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 질적인 접근법과 실험법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면접과 FGI를 이용한 질적인 접근을 통해, 개인의 권리나 자유와 같은 자율성 차원보다 대인관계 윤리 및 규범을 위반했을 때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위반하는 상황이라는 응답이 많이 나와, 사람됨의 판단 준거가 대인관계 윤리나 규범을 준수하는가에 더 많이 있다는 것이 분석을 통해 나타났다. 특히 부모자녀관계에서의 기대나 도리가 사람됨 판단의 중요한 준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관계를 강조하고 유교적 가치관이 영향을 받은 한국 사회의 특성이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타인들의 행동에 대한 판단이나 평가에서도 개인의 원리 영역보다는 대인관계 윤

리 규범이나 공동도덕 등 공동체 윤리 차원을 위반했을 때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시 한 번 사람됨의 평가 및 판단의 준거로서 후자의 차원이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람됨의 준거 위반에 대한 정서적 반응은 화 관련 정서가 가장 많이 나타나 사람됨의 준거에 못 미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화를 불러일으킨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그 이유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러한 평가의 이유로 사회윤리를 저버리고, 역할 기대를 저버리고, 관계 규범을 지키지 않았다는 연유로 사람으로서 지켜야 하는 도리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지켜야 하는 규범을 어겼을 때 화 관련 정서가 표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타인의 행동의 사람됨의 준거를 위반했을 때에도 화를 내거나, 경멸하는 등의 타인 비판적 정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질적 자료 분석의 결과들과 기존의 도덕적 판단이나 평가와 문화에 따른 차이 등에 관한 연구들을 참고로 하여 대인관계 윤리 영역과 자율성 차원에 관한 스크립트를 구성하여 화 반응과 화 반응 관련 귀인 및 심리적 기능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차원별 화 반응에서는 대인관계 윤리 위반 영역이 개인의 자율성 영역보다 높게 나타났고, 자율성의 영역에서도 개인의 선호 행동이 타인에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때에는 화 반응을 촉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측정치가 아닌 화 반응에 대한 피험자들의 이유를 묻는 질문의 답변 내용에서도 나타난 바, 화가 나는 이유의 대부분은 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규범을 위반했거나 기대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러한 규범 위반 행위나 기대 불충분 행동이

타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개인에게는 부정적 평가가 따르기 때문이라는 내용들이었다.

정서 경험의 이러한 특성을 자의식적 정서로 설명하는데, 부끄러움이나 죄책감 등과 같은 도덕적 평가에 관련된 정서를 자의식적 정서 중에서도 도덕적 정서로 분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타인 비판적 정서로서의 화를 자의식적이고 도덕적인 정서로 보고, 도덕적 판단 차원을 크게 대인관계 규범과 자율성 영역으로 구분하여 실험을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화는 대인관계 윤리규범을 위반했을 때 더 강하게 경험되고, 화 경험은 행위에 대한 비난과 행위에 대한 책임이 영향을 미치고, 대인관계 규범 위반은 타인의 비난을 자율성 위반보다 더 많이 받고, 타인에게 피해를 더 많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인관계 규범 위반자에 대한 타인의 평가는 더 부정적이었으며, 자기 스스로의 평가 또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화는 개인적으로, 대인관계 측면에서 행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행위 제지의 주된 원인은 사회 규범을 위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성 위반 행위도 부분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기 때 문에 행위 제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도덕적 정서로서의 화는 대인관계 윤리나 규범을 위반했을 때 개인의 자유나 권리 등을 위반했을 때보다 더 활성화되어 경험되는 자의식성이 강한 정서라고 할 수 있고, 사회의 도덕적 관례 속에서 문화적이고 규범적인 양식에 따라 나타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도덕적 화의 자의식적 차원은 개인

의 관여 정도에 따라 그 발화정도와 표현 정도가 상당히 다를 수 있고, 더불어 화 언어와 행위는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나 화 관련 정서(언어적, 행동적 표현)에 대한 세분화와 강도 등 이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요구되어진다. 또한 평가에 따른 표현에 있어서, 타인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정서적 표현은 언어적 표현이 185개 이었음에 비해, 이와 관련된 정서적 행동 표현은 32개에 불과했다. 이는 타인의 위반 행위에 대해 화의 표현이 직접적이기보다는 간접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거나 오히려 참거나 피하는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추후의 연구에서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는데 부끄러움을 모르면 화가 난다(왜 금수와 같기 때문에...)'와 같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부끄러움과 화 관련 정서와의 관계 및 부끄러움과 죄책감과의 관계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개인차나 성차 및 연령이나 세대에 따른 차이 및 기타 사회적 배경(직업, 계층이나 지역) 차이에 따른 분석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희 (2002). 한국아동과 청소년의 도덕적 정서: 죄책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5(1), 35-55.
- 김기범, 김양하 (2004). 자의식적 정서로서 부끄러움의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3), 29-45.
- 김시엽, 김기범 (2003).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감정의 관계: 도덕적 self로서의 염치와 도덕적 감정으로서의 부끄러움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1), 87-101.
- 김의철 (2000). 토착심리학과 문화심리학의 과학적 토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3), 1-24.
- 김의철, 박영신 (2004). 한국 사회와 사람에 대한 사회적 표상과 신뢰: 청소년과 성인의 지각을 통해 본 토착심리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3), 103-129.
- 이승환 (1998). 유가사상의 사회철학적 재조명.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조궁호 (1990). 대인평가차원의 이원모형.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9(1), 87-110.
- 조궁호 (1998). 유학심리학. 서울: 나남.
- 조궁호 (2003). 한국인 이해의 개념들. 서울: 나남출판.
- 최상진 (2000). 한국인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 최상진, 김기범 (2000). 체면의 심리적 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185-202.
- 한규석, 최송현, 정옥, 배재창 (2004). 한국사회에서의 사람 판단의 준거: 된 사람과 난 사람의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1), 23-39.
- Barresi, J. (1999). On becoming a person. *Philosophical Psychology*, 12(1), 79-98.
- Burr, V. (2002). *The person in social psychology*. Psychology Press.
- Callahan, S. (2002). Lured by the spirit to the ethical life. *Spirituality*, 32-34.
- Denham, G. (2002). The essence of women's moral perspectives in anger expression situations. *Journal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9, 391-397.
- Eisenberg, N. (2000). Emotion, regulation, and

- moral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1, 665-697.
- Haidt, J., Koller, S. H., & Dias, M. G. (1993). Affect, culture, and morality, or is it wrong to eat your do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4), 613-628.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Harre, R., & Gillett, G. (1994). *The discursive mind*.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Miller, J. G. (1997). Understanding the role of worldviews in morality. *Human Development*, 40, 350-354.
- Montada, L. (1993). Understanding oughts by assessing moral reasoning or moral emotions. In G. G. Noam, & T. E. Wren (Eds.), *The moral self* (pp. 292-309). Cambridge, MA : The MIT Press.
- Shweder, R. A. (1991). *Thinking through Cultur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Shweder, R. A., & Haidt, J. (1993). The future of psychology: Truth, intuition, and the pluralist way. *Psychological Science*, 4(6), 360-365.
- Rozin, P., Lowery, L., Imada, S., & Haidt, J. (1999). The CAD triad hypothesis: A mapping between three moral emotions (contempt, anger, disgust) and three moral codes (community, autonomy, divin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4), 574-586.
- Shweder, R. A. (1991). *Thinking through Cultur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Shweder, R. A., & Haidt, J. (1993). The future of psychology: Truth, intuition, and the pluralist way. *Psychological Science*, 4(6), 360-365.
- Stearns, P. (1995). Emotion. In R. Harre, & P. Stearns (Eds.), *Discursive psychology in practice* (pp. 37-54). London: Sage Publications.
- Tangney, J. P., Wagner, P. E., Fletcher, C., & Gramzow, R. (1992). Shamed into anger? The relation of shame and guilt to anger and self-reported ag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4), 669-675.
- Tangney, J. P., Wagner, P. E., & Hill-Barlow, D. (1996). Relation of shame and guilt to constructive versus destructive responses to anger across the lifesp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4), 797-809.
- Taylor, S. E. (1998). The social being in social psychology. In D. T. Gilbert, S. T. Fiske, & G. Lindzey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4th edition)(pp. 58-95). Boston, MA: The McGraw-Hill Companies, Inc.
- Turiel, E. (1983b). Domains and categories in social cognition. In W. Overton(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and cognitive development* (pp. 53-89). Hillsdale, NJ: Erlbaum.

1 차 원고 접수일 : 2005. 4. 28

최종 원고 접수일 : 2005. 6. 30

The Relationship between Transgressive Behaviors of Humanity and Moral Anger in Korean Culture

Kibum Kim

Sungkyunkwan University

Hyojin Im

Chung-Ang University

Many researches have argued the most important dimension of perception or evaluation of person is morality and competence in Korean culture.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 criteria of personhood. Two studies were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criteria used to evaluate person by qualitative approach and the differences of evaluation of wrongdoer who violates interpersonal norm or individual autonomy by experimental method. In addition, anger as emotional response to wrongdoer is conceptualized in terms of moral and self-conscious emotion. Expression of anger is less an outpouring of emotion and more a culturally regulated and normative mode of managing and putting into practice our society's system of rights and obligations - its moral code. According to results of qualitative data by interview and focus group interview, the most important criteria used to evaluate personhood was interpersonal concern, esp, expectation and norm. The results of experiment revealed that violation of interpersonal norm domain evoked angrier towards violator than autonomy domain. The subjects ascribed more blame and responsibility to interpersonal norm violator than autonomy keeper. Also function of behavior inhibition of anger was higher in interpersonal norm domain than autonomy domain.

key words : moral anger, personhood, interpersonal norm, autonomy, self-conscious emotion